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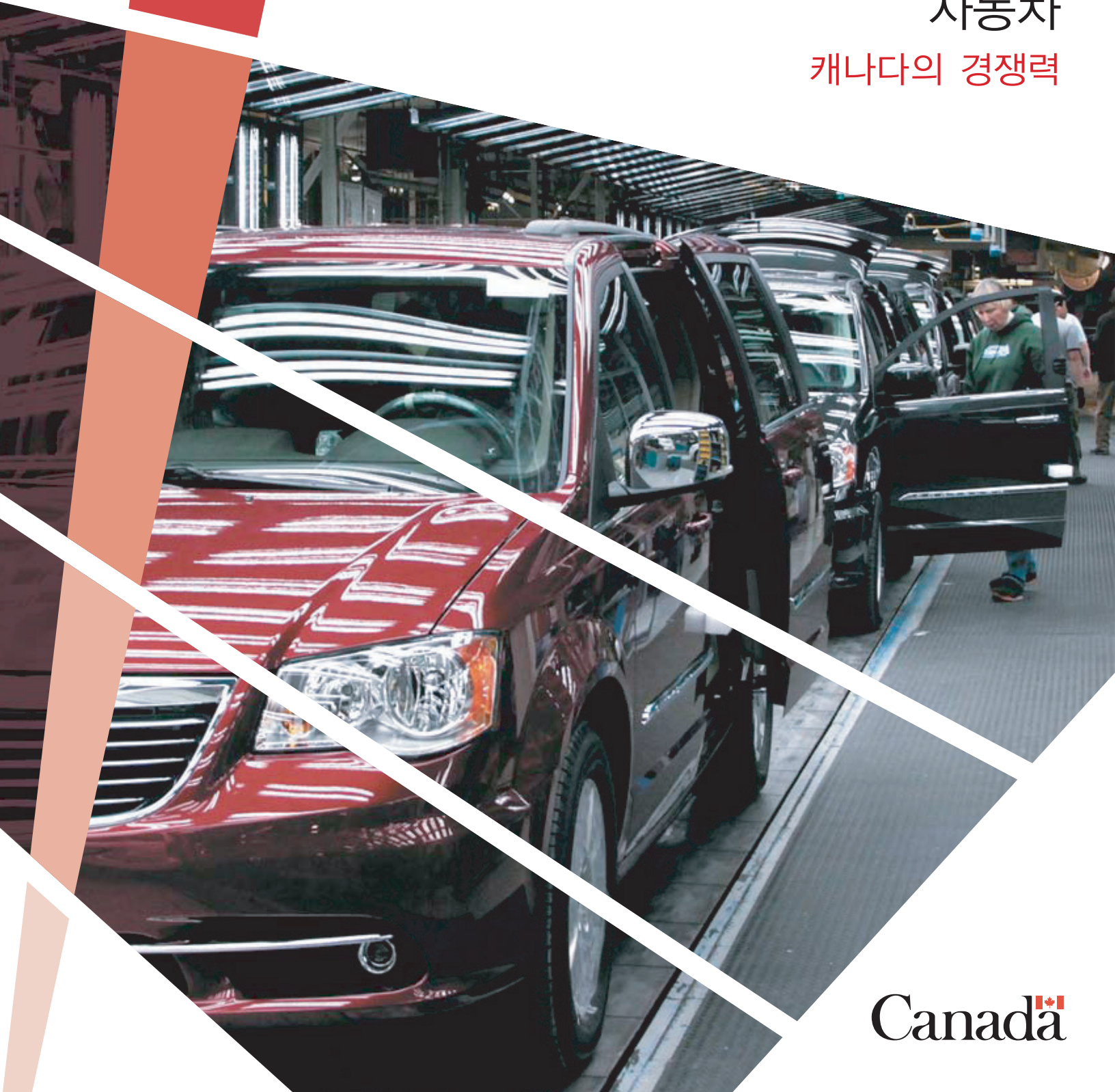
2011



최적의 투자처 캐나다

자동차

캐나다의 경쟁력



Canada 

캐나다 선도기업

- 아이신 캐나다(Aisin Canada Inc.)
- 카미 오토모티브
(CAMI Automotive Inc.)
- 크라이슬러캐나다
(Chrysler Canada Inc.)
- 콘티넨탈그룹
(Continental AG, 구 지멘스 VDO)
- 덴소(DENSO Corp.)
- 포드캐나다
(Ford Motor Company of Canada Ltd.)
- GM캐나다
(General Motors of Canada Ltd.)
- 혼다캐나다(Honda Canada Inc.)
- 리나마(Linamar Corp.)
- 마그나 인터내셔널
(Magna International Inc.)
- 마틴리어 인터내셔널
(Martinrea International Inc.)
- 파카캐나다(PACCAR of Canada Ltd.)
- 도요타캐나다(Toyota Canada Inc.)
- TRW
- 브로제(Brose GmbH)
- 존슨콘트롤스(Johnson Controls Inc.)

최근 캐나다 투자현황

메르세데스벤츠캐나다(Mercedez-Benz Canada Inc.)는 2011년 3월,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 시장을 겨냥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나비에 연료전지 생산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를 골자로 한 캐나다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크라이슬러(Chrysler Group LLC)는 2010년 에토비코 주조공장에 2,72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¹

2010년에는 7개 대학과 GM 및 IBM²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온타리오주 소재 맥마스터 대학에 1,66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 자동차 연구 네트워크를 전국 차원에서 구축했다.

멕시코 기업 네막(Nemak)은 캐나다, 미국, 호주에 있는 GM 생산라인에 엔진을 공급하기 위해 원저 알루미늄 공장에 800만 달러를 투자했다.³

GM은 신형 엔진과 6단 변속기 생산을 위해 세인트캐서린스 공장의 파워트레인 시설을 확장했다. 2010년 4억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8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⁴

마그나인터내셔널(Magna International)과 NRC는 합작을 통해 2009년 온타리오주 콩코드에 720만 달러 규모의 우수성복합센터(Composite Centre of Excellence)를 설립했다.⁵

카미오토모티브(CAMI Automotive)는 생산능력 확대 및 3교대제 추가에 9,6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2009년 총 580개의 일자리를 확충했다.⁶

리나마(Linamar)는 2009년 착수된 친환경 저연비 파워트레인 프로젝트(Green & Fuel Efficient Powertrain Project)에 3억 6,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⁷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전기 하이브리드 차종의 부품 생산을 위해 퀘벡주 소재 기업인 TM4와 합작했으며 2,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도 실시했다.⁸

도요타(Toyota)는 1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동차 조립 공장을 개설해 온타리오주 우드스톡에 1,200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포드(Ford)는 2008년 온타리오주 원저에 있는 자사의 에섹스 엔진 공장을 현대화하고 파워트레인 연구개발센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5억 9,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임.

1. www.media.chrysler.com/pdf.do?id=9882

2. GM 캐나다.

3. 원저스타, 2010년 9월 28일.

4. 나이아가라 비즈니스 펄스, 2010년 6월.

5.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NRCC).

6. 글로브 앤드 메일, 2009년 11월 9일.

7. 토론토 스타, 2009년 11월 9일.

8. http://www.hydroquebec.com/publications/en/strategic_plan/pdf/plan-strategique-2009-2013.pdf - pg.65

커버사진: 크라이슬러 캐나다.



사진 출처: GM 캐나다.

자동차 산업

캐나다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북미 자동차 생산량의 17%인 약 250만 대를 생산한다. 캐나다는 세계 3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한 해 생산되는 자동차의 75% 이상이 전 세계로 수출된다. 2010년 자동차 부문은 캐나다 제조업 GDP의 12%를 차지하며 총 685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 중 수출로 인한 수익은 515억 달러였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본 투자 규모는 2001~2010년 연간 평균 35억 달러에 달한다.⁹

캐나다 자동차 제조 산업에는 1,300여 업체에서 109,000명 이상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¹⁰ 지난 10여 년간 자동차 제조업 분야는 주로 독일, 일본,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왔다. 고용, 투자, R&D는 온타리오주, 퀘벡주, 매니토바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G20 국가로는 처음으로 제조 투입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이러한 감면은 2010년에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2015년까지 화학, 섬유, 석조, 유리, 금속 기계류 및 장비를 포함하여 캐나다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모든 투입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핵심 역량

연구 개발(R&D):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연구 개발에 연평균 4억 8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자동차 관련 혁신 산업에서 캐나다는 특히 금속 가공, 신소재, 첨단 디자인, 비주열라이제이션 및 제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부문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¹¹

캐나다의 R&D 클러스터는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동차 기업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세금공제 및 자금지원도 후한 편이다.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민간 기업들은 대학 및 공공 연구센터와의 제휴를 통해 산학합동연구를 수행한다. 제휴 기관으로는 오토21 우수연구센터네트워크(AUTO21 Network Centres of Excellence),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캐나다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산하 금속 및 재료 연구소가 있다.

자동차 조립: 캐나다는 북미에서 가장 생산량이 높은 다수의 경차 조립 공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캐나다 조립 공장은 우수한 품질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다.¹²

- 1991년 이래 캐나다 조립공장은 북미 JD 파워(J.D. Power) 공장품질상의 1/3을 휩쓸어 왔다.
- 도요타의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 공장이 2010년 JD 파워 공장품질상을 수상했다.
- GM 오사와 공장이 2009년 JD 파워 공장품질 은상을 수상했다.
- 도요타와 GM의 캐나다 공장은 지난 10년 중 6차례나 JD 파워 초기품질조사에서 서반구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9 캐나다 산업부, 다양한 출처.

10 스탯스캔(Statscan)-2009년 자동차산업.

11 캐나다 산업부, 다양한 출처.

12 JD 파워 앤드 어소시에이츠(JD Power and Associates).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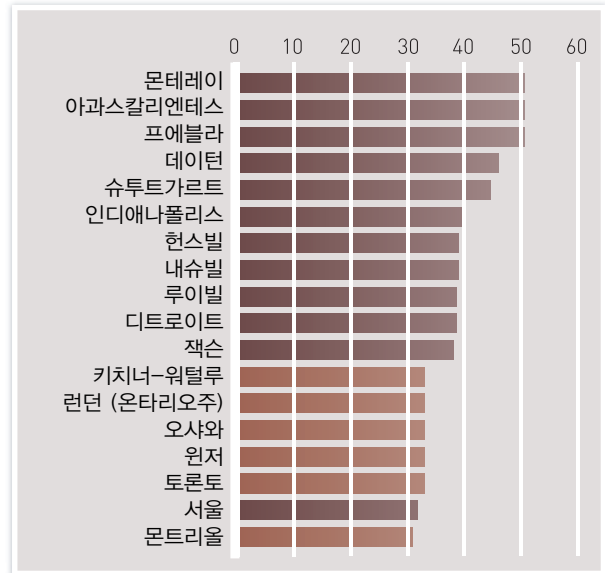
장점:

유리한 법인세율

캐나다의 전반적인 사업소득세는 G7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축에 속한다. 미국과 독일의 수준과 비교해 캐나다의 법인세율은 훨씬 낮다.

- ▶ 이 도표는 주요 도시에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소득세 총액을 나타낸 것이다. 수치는 2009~2010년 사이에 기업의 총이익 대비 세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 은행, 2010 기업환경평가, 세금재단, 미국 주와 OECD 국가의 국가·주별 법인세율, 2009년, KPMG: 일반기업 소득세율 (200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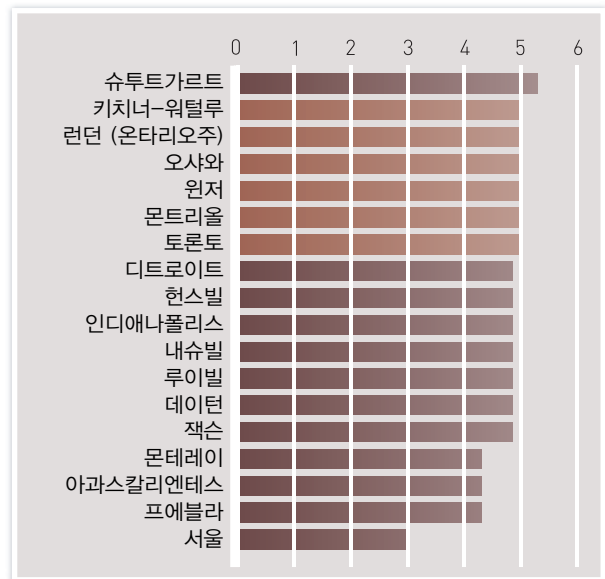
장점:

우호적인 노사관계

캐나다의 노사관계는 '캐나다 노동법'의 원칙에 따라 대립이 아닌 협력을 추구한다. '모두에게 발전의 성장에 대한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캐나다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명시한 노동법은 연방/주/준주 차원의 노사 프로그램을 위한 지침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캐나다의 노사관계는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거나 다소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

- ▶ 이 도표는 각 도시의 노사관계 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0점은 열악한 노사관계를, 6점은 우호적인 노사관계를 의미한다.

노사관계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20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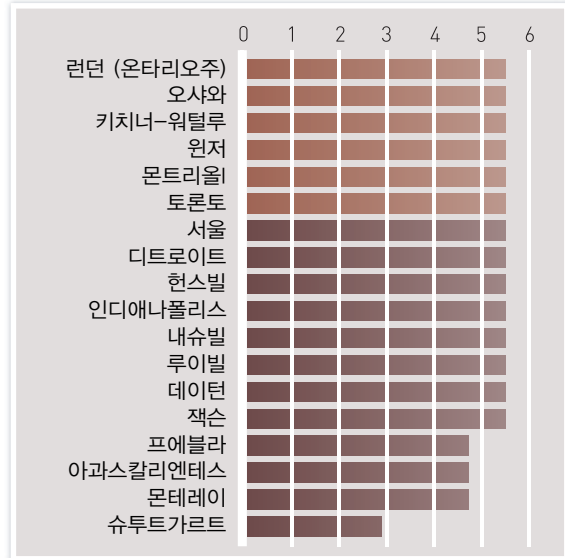
장점:

유연한 임금결정체계

캐나다의 임금결정 규제는 미국만큼이나 유연하여 개별 기업이 적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 이 도표는 임금결정 면에서의 유연성을 평가한 것으로, 0점은 중앙 집권적 교섭 절차를 통해 임금이 결정됨(유연성 최저)을 의미하고 6점은 각 기업이 임금을 정하는 것(유연성 최고)을 의미한다.

임금결정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20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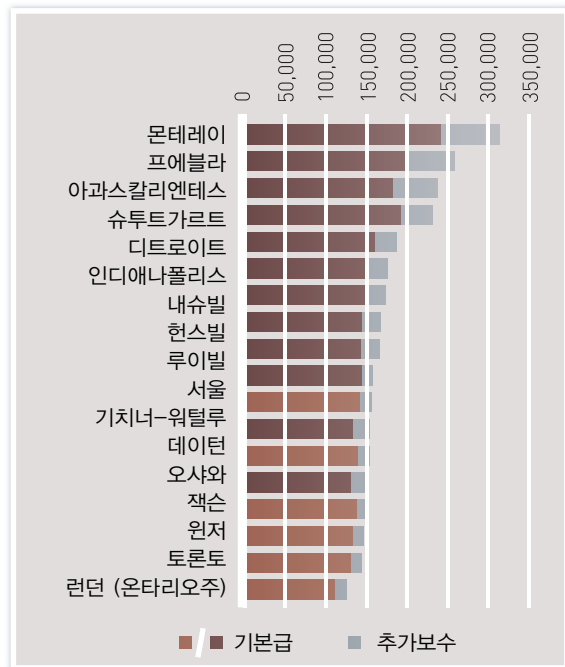
장점:

제조부문 책임자의 임금 경쟁력

캐나다의 제조업체 책임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미국, 독일, 멕시코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

- ▶ 이 도표는 제조업체 책임자의 보수 수준을 살펴본 것이다. 책임자들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주요 제조 공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이들이 감독하는 제품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개발에 수 년이 소요된다.
- ▶ 보수체계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및 성과급 등 추가 보수가 포함된다.

제조부문 책임자



출처: fDi 벤치마크, 타워스왓슨, 2010/2011 세계 50대 급여정책 보고서.

캐나다 자동차 산업: 개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수소 및 연료전지 부문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02년부터 캐나다 수소 및 연료전지 연구 개발에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자본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소재 기업들에 투입되었다. 캐나다 수소 및 연료 전지 부문 인력의 70%인 총 1,200명이 이 지역에서 고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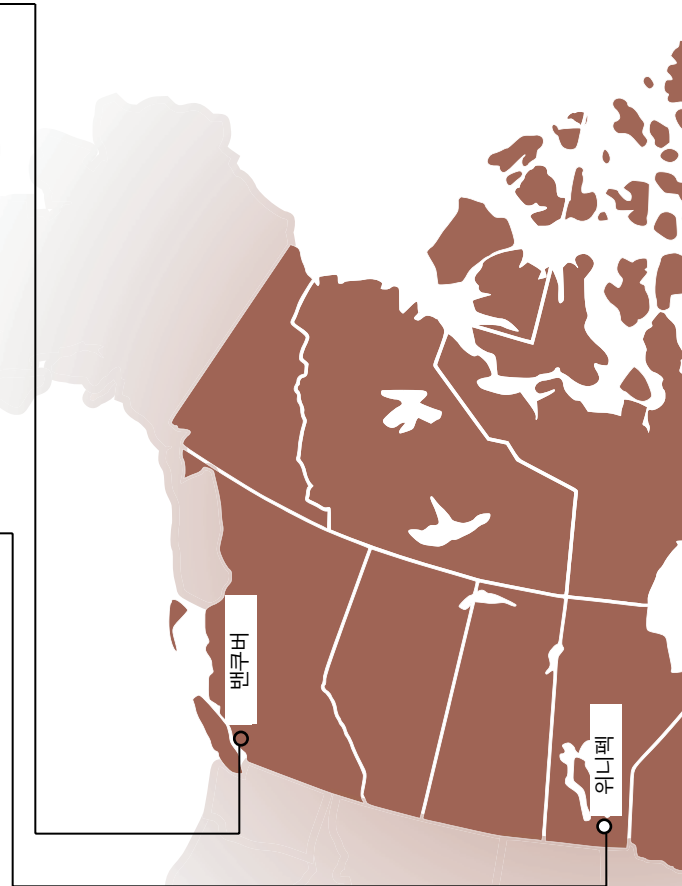
1979년 존 발라드(John Ballard)가 설립한 **밴쿠버** 소재 발라드 파워시스템즈(Ballard Power Systems)는 이 지역에서 연료전지 기술에 관한 탄탄한 기업풀을 형성하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2011년 3월 독일 자동차 기업 다임러(Daimler)가 자동차용 연료전지 합작회사 AFCC와 제휴하여 밴쿠버주에 연료전지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청정에너지 부문의 강자로서 그 입지를 다졌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첨단 제조 및 혁신 부문의 고속권 공학자와 기술자, 생산인력 등 5만 명 이상의 풀이 형성되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마니토바주 ○

북미 버스 시장의 1/3 이상은 마니토바주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은 도시간 운행하는 대형버스 제조사인 모터코치 인더스트리(Motor Coach Industries Ltd., MCI)와 도심버스 최대 제조사인 뉴플라이어 인더스트리(New Flyer Industries Ltd.)가 주도하고 있다. MCI는 4,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위니펙** 소재 세계 유일의 최첨단 제조설비를 통해 도시간 이동용 대형버스 차량의 생산 및 공학기술을 공고하게 다지고 있다.

마니토바주에 위치한 40여 개의 성공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캠핑카, 소방차, 스텝 밴(step van)을 비롯해 다양한 세미 트레일러(semi-trailer)를 제작하고 있고 있으며 대부분 북미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작업체 절반 정도가 1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소규모 기업들이다. 마니토바주에서는 8,000명 이상이 운송장비 제조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이들 중 1,620명이 차량 본체 및 트레일러 제조 부문에서 근무했다. 이 지역의 자동차 산업은 원재료와 부품, 구성품 조립, OEM 서비스 등 다각화된 인프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온타리오주

자동차 조립·부품 제조업체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온타리오주는 자동차 및 부품의 연구, 디자인, 개발, 제조 부문에 있어 최적의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출하량은 2010년 2,062,559대로 캐나다 전체 출하량의 92% 이상을 차지한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21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립 공장 품질 조사에서 J.D. 파워상을 17차례 수상하면서 2004년 이래 북미지역 조립공장의 선두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온타리오주 소재 GM 오사와 자동차 공장과 도요타 케임브리지 공장이 각각 2009년에 은상, 2010년에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10년 간 자동차 제조부문에 투자한 연간 자본 규모는 평균 35억 달러로 윈저, 오사와, 워털루 지역, 런던, 토론토 등 지역 클러스터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주요 제조업체로는 크라이슬러(Chrysler), 포드(Ford), GM(General Motors), 혼다(Honda), 도요타(Toyota), 덴소(Denso), 리나마(Linamar), 마그나(Magna) 등이 있다. 사실, 일본을 제외하고 도요타 렉서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곳은 온타리오주의 워털루 지역뿐이다.

온타리오주에 입지한 자동차 업체는 품질이나 가격 경쟁에서 세계 다른 지역 업체들보다 유리하며, JD 파워 초기품질조사와 하버리포트(Harbour Report) 생산성 조사에서도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G7 국가 중 인구 대비 유능한 엔지니어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의 자동차 전문 기술자 87,000명 중 40%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았고, 한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 기간은 평균 9년이다.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세계 우수 기업들은 150개 이상의 대학 및 공공 연구센터와 산학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신제품 개발 및 시장으로의 출시 진행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산학연계를 통한 연구성과를 대대적으로 상품화하는 데 기여한 회사로는 우수연구센터네트워크 중 가장 규모가 큰 AUTO 21과 온타리오주 우수 연구센터 부속 기관인 재료 및 제조 연구소(Centre for Materials and Manufacturing) 등이 있다.

○ 퀘벡주

퀘벡주에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독창적인 장비 제조 및 대체생산시장에서 활약하는 250개 이상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다. 자동차 산업의 연평균 매출은 37억 달러 규모이며 약 11,500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부품, 시스템, 장비 중 85%는 주로 캐나다 내 온타리오주와 미국 등지로 수출된다. 이 분야는 중소기업과 일부 외국계 자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적 기업으로 워털루 TG(Waterville TG), 레하우(Rehau), 라우포스(Raufoss), 브릿지스톤(Bridgestone), 마크 IV 오토모티브(Mark IV Automotive), 팀켄(Timken)이 있다.

몬트리올 광역권에는 리오 틴토 알칸(Rio Tinto Alcan) 및 메카크롬(Mecachrome) 등 세계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이 대거 몰려 있다. 경금속 부문에서 특화되어 있는 몬트리올은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NRC)의 산업소재연구원(Industrial Materials Institute), 에콜 폴리테크니끄(École Polytechnique de Montréal), 폴리머응용연구센터(CREPEC), 콩코디아대학의 복합구조센터(Concordia Centre for Composites)와 같은 대규모 첨단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퀘벡주에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제조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관련 최첨단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이 기업들의 주요 핵심 분야는 경량소재, 연료공급시스템, 전기동력화 및 배터리며, AMT 다이캐스팅(AMT Die Casting), 스펙트라 프리미엄(Spectra Premium), TM4, 바티움(Bathium)과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도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퀘벡주에는 또한 신소재(경금속, 복합소재 등), 배터리, 새로운 추진시스템, 연료 및 소음 감소 등 지상운송산업과 관련된 전도 유망한 분야의 연구 센터 30여 곳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센터들이 주요 지상운송산업 부문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퀘벡주의 주요 자산이다.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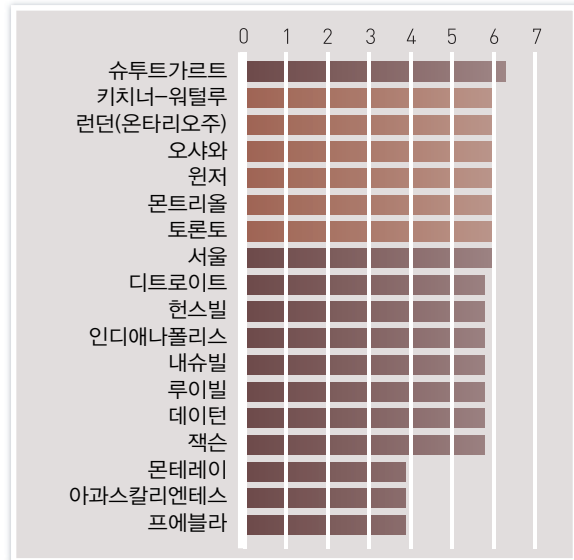
장점: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캐나다의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 공공 인프라는 도시와 공동체의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캐나다의 도로와 교량, 철도, 항구, 공항은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며 건축과 관리 수준이 높고 안전하다.

- ▶ 이 도표는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인프라의 전반적 질을 평가한 것이다. 0점은 인프라의 개발수준이 '매우 낮음'을 뜻하고 7점은 '매우 높음'을 뜻한다.

인프라 전반의 질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20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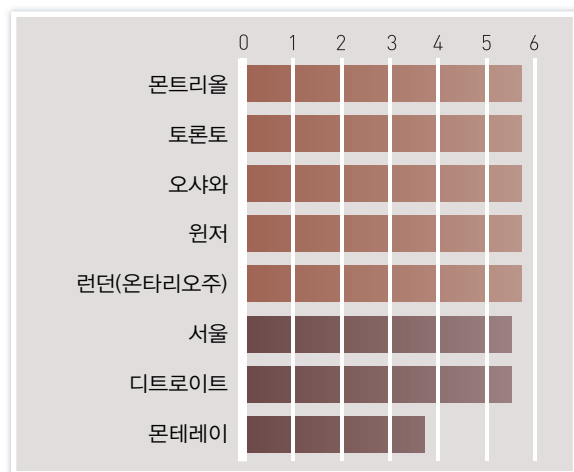
장점:

항만 인프라 수준

캐나다에서 항구는 국가 공급망의 핵심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상품을 수출입하는 통로이다.

- ▶ 이 도표는 주요 도시의 항만 인프라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0점은 인프라가 '대단히 열악한 상태'인 반면 6점은 인프라 상태가 '국제적 기준에서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며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만 인프라 수준



출처: f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20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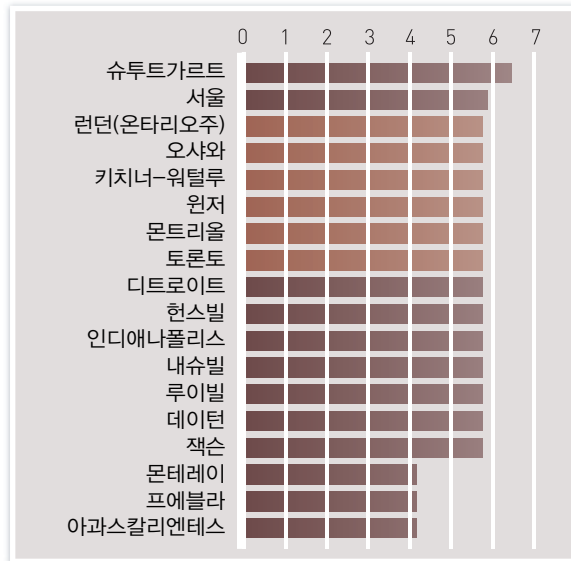
장점:

도로 현황

캐나다 고속도로는 38,000km 구간에 걸쳐 건설되어 있으며 전국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 및 지역 도로를 통합하고 있다.

- ▶ 이 도표는 주요 도시의 도로 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1점은 도로망 '구축이 열악하다'는 의미이고 7점은 '국제적 기준으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 현황



출처: IDi 벤치마크,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보고서(2010/11).



컨페더레이션 다리.

캐나다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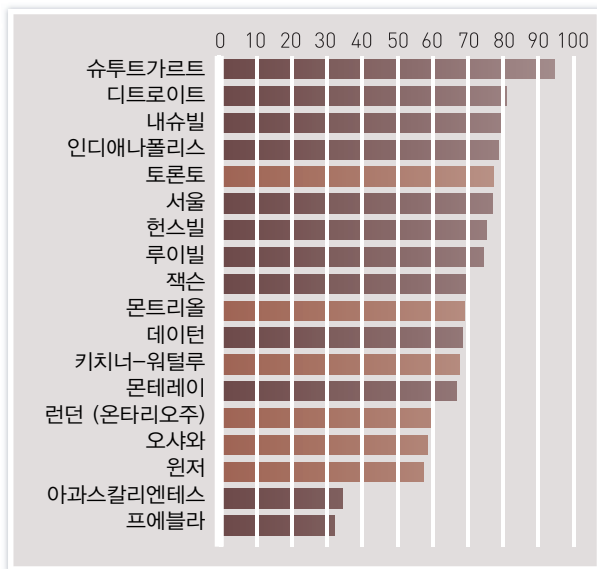
뛰어난 삶의 질과 합리적인 생활비

캐나다의 도시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몬트리올, 런던, 오사와, 윈저 등은 더 낮은 생활비와 더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한다. 2011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밴쿠버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았고 토론토와 캘거리 역시 10위권에 들었다.

▶ 이 도표는 주거비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비를 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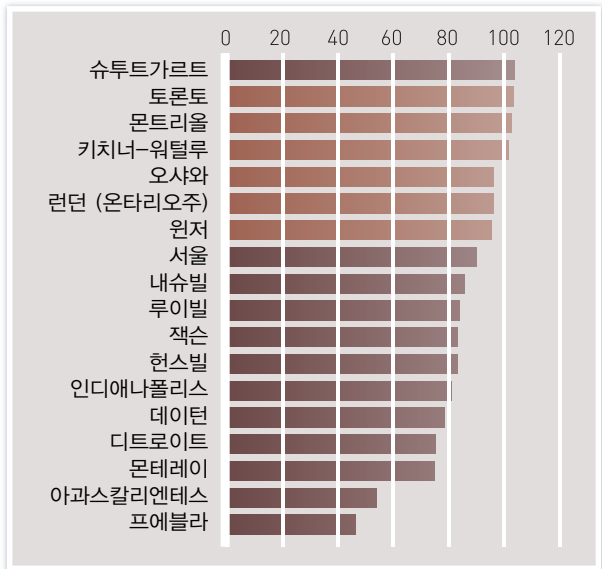
▶ 이 도표는 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를 평가한 것이다.

생활비 지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 자료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삶의 질 지수



출처: fDi 벤치마크, 파이낸셜타임즈 자료에 근거한 fDi 인텔리전스의 분석.



투자지역 벤치마킹

상기 표와 그래프는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 Ltd.)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fDi 벤치마크(fDi Benchmark, www.fdibenchmark.com)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이 검색도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데이터베이스와 입지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부문과 투자사업에 대하여 전 세계 국가, 지역, 도시의 매력도를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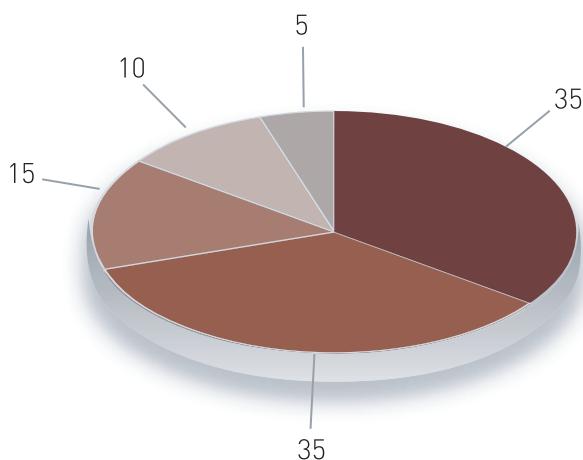
- ▶ 이 문서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된 캐나다 및 외국 도시들은 자동차사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다.
 선정도시: 아과스칼리엔테스(멕시코), 데이턴, 디트로이트, 헌스빌, 인디애나폴리스, 잭슨, 키치너-워털루, 런던(온타리오주), 루이빌, 몬테레이(멕시코), 몬트리올, 내슈빌, 오사와, 프예블라(멕시코), 서울, 슈투트가르트, 토론토, 윈저
- ▶ 다음 기업 프로파일은 직원이 400명인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의 회사의 세부 정보이다. 대부분의 직원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며 일부가 시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비용 요소	사용량
건물	평방미터
총 사용면적 (시내사무실 임대)	800 m ²
총 사용면적 (산업용지 임대)	50,000 m ²
공공서비스	
전기	72,460 100kWh
산업용 가스	680,000 m ³

직원 유형	제조
인원	
제조 책임자	1
생산 관리자	1
생산 담당자 (고숙련)	50
생산 담당자(숙련)	94
생산 담당자 (미숙련)	170
품질 관리자	1
품질관리 전문가	16
R&D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55
행정	
시설/사무실 서비스 전문가	2
비서	10
총인원	400

질적모형 / 가중치 적용



가중모형 개요	가중치
노동가용성과 질	35%
산업클러스터의 존재	35%
일반 사업환경	15%
인프라 및 접근성	10%
주거환경	5%

캐나다의 경쟁력

캐나다는 수많은 장점과 최고의 잠재력을 자랑하며,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고급 인력

캐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2위의 고등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출처: IMD, 2010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유리한 사업환경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향후 5년간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캐나다를 꼽았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사업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 2011년 3월)

견실한 경제

2009년 3분기부터 캐나다 경제는 6분기 연속 성장하고 있고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된 일자리와 생산량 손실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1년 예산)

금융 안정성

지난 3년간 캐나다의 은행시스템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견실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낮은 세율

신규 기업투자자에 대한 캐나다의 전반적인 세율은 G7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법인세율 역시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출처: 캐나다 재무부, 2010년)

과학연구와 실험개발

캐나다는 매우 풍부한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R&ED)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G7 국가들 중에서 R&D 주도 분야의 사업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출처: KPMG, 2010 경쟁력 있는 대안(Competitive Alternatives 2010). OECD)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의 NAFTA가 제공하는 이점을 통해 투자자들은 4억 4,800만 명이 넘는 북미 소비자들과 대륙 전체의 GDP 합산액이 미화 16조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대규모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데이터베이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2010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

세계적 수준의 대학, 널리 인정받는 보건 의료 체계,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들, 멋진 풍경을 고루 갖춘 캐나다는 사업투자자와 근로, 생활, 가족 부양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출처: 유엔개발계획, 2010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2010 살기 좋은 도시 보고서(Global Liveability Report 2010))



**캐나다에 투자하십시오.
성공의 시작입니다.**

캐나다 투자청

외교국제통상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서섹스 드라이브 111(K1N 1J1)

vp.investincanada.com

카탈로그 번호: FR5-38/2-2011E

ISBN 978-1-100-18409-8